

**현대중공업(주)**

**중저압차단기 UL인증**

美 보험협 주관, 세계 최고 권위의 안전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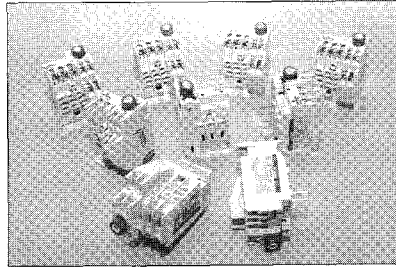
현대중공업(공동대표: 최길선·민계식)의 전자접촉기와 열동식 과부하 계전기 등 제품이 국제공인 안전규격인 「UL인증」을 획득했다.

현대중공업은 전기전자시스템 사업 본부에서 생산하는 중저압차단기 관련제품에 대해 지난달 미국 UL인증단의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에 응했던 전자접촉기 19종과 계전기 10종 전부에 대해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UL(Underwrite Laboratories Inc.)인증」은 미국 보험협회안전시험소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안전규격인증으로, 심사절차가 까다롭고 기준이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전동기의 전원장치인 전자개폐기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규격과 용량별로 제품이 다양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더욱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캐나다 MGI社로부터 전자개폐기를 수주하는 등 UL인증 획득으로 인한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면서, “기존의 확보된 수출 시장인 동남아시아와 중동지역 외에 이번 인증으로 미주 지역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



전자접촉기

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 중저압차단기 시장 1위인 LG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이번 UL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전기부품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LG산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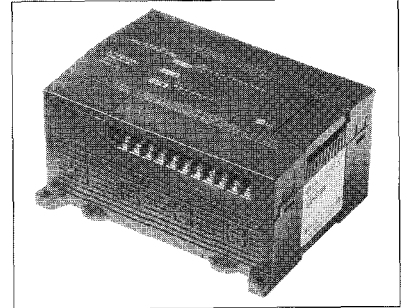
**수출형 PLC 개발**

새로운 개발 프로세스 적용한 신제품

LG산전(대표:김정만)이 수출 전략형 초소형 PLC(논리연산제어장치) 신제품 13종(모델명: MASTER-K120S시리즈, 입출력 점수: 20~120점)을 개발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국내외 시장에 시판할 예정이다.

이번 신제품은 개발 초기에 해외지역 고객들과 국내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제품개발에 반영하였으며, 제품 개발 완료 단계에서는 고객들로부터 제품에 대한 평가를 받는 등 새로운 개발 프로세스를 적용한 제품이다.

LG산전 관계자는 “고객 평가를 받



는 과정에서 이미 중국지역 고객들로부터 100만弗 상당의 제품수주를 미리 받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신제품의 명령어 처리속도는 0.1us(마이크로세크)로, 기존 제품보다 처리속도를 약 4배 이상 향상시켰다.

또한, 위치제어를 위한 100kHz의 고속펄스출력 2점 내장과 손쉬운 위치 설정 프로그램 편집기능이 있어 2개의 정밀한 위치제어를 할 수 있으며, 3개의 통신채널(RS-232C, RS-485, 로더포트)을 지원하고 있어 통신을 사용하는 고객이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LG산전은 올해 이 신제품으로 약 300만弗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대한전기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

대한전기학회(회장 고인석)는 지난 7월 21~23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평창군 소재 용평리조트에

서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대학, 연구소, 산업체에서 1500여명(동반가족 300여명 포함)이 참가하여 1,000여편의 학술논문과 연구개발성과가 발표 토론되는 산·학·협동의 학술 대축제인 이번 「하계학술대회」에서는 전력기술, 전기기기, 전기물성 및 응용, 시스템 및 제어, 부문 등으로 나눠 논문 발표를 하고, 신기술 우수제품 전시회도 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전에서 키운 어패류 바다에 방류  
원전 주변해역 어족자원 조성에 앞장**

**한** 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 사장: 정동락)은 원전 온배수로 키운 어패류를 바다에 방류함으로써 연안해역 어족자원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월성, 울진과 고리원전은 지난 7월 11일 넙치, 참돔, 전복 등 50여만 마리(2억 7천만원 상당)를 지방자치단체, 어민 등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원전별로 주변해역에 방류하는 행사를 가졌다.

월성원전은 자체 양식장에서 키운 참돔, 전복 등 30여만 마리를, 고리와 울진원전은 월성원전 양식장에서 키운 참돔 등 어패류 20여만 마리를 방류하였다. 영광원전은 지난 6월 3일 자체

양식장에서 키운 넙치(중간성어 16~18cm) 2만여 마리를 방류한 바 있다.

한수원은 '95년 영광원전, '98년 월성원전에 온배수를 이용하는 양식장을 건립하여 운영한 이후 매년 이곳에서 키운 어패류를 방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97년부터 지난해까지 넙치, 전복 등 총 910만 마리(시가 13억 5천만원 상당)의 어패류를 주변해역에 방류함으로써 원전주변 어족자원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자연환경에서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양식장에서 중간성어 크기로 키워 방류하고 있으며, 또한 온배수이용 양식기술을 지역 주민에게 보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온배수를 이용한 양식 어패류 방류 사업은 자원의 재활용은 물론 온배수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한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류사업을 통해 원전 주변해역 어족자원 조성은 물론 축적된 양식기술을 어민들에게 전파하여 어민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 2002년도 제안경진대회 개최**

**한** 국중부발전(주)(사장 김영철)의 보령화력본부는 지난 7월 2일 종합사옥 대회의실에서 정덕한 본부장을 비롯한 각 팀장 및 제안자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상반기 제안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발전회사의 경쟁체제 돌입 이후 현장직원의 창의적인 업무 개선을 통한 회사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2001년도부터 연 2회씩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도 '제안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 16~6월 25일까지 제안 강조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총 2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1차 선발을 통해 11건의 발표회를 가진 것이다.

이날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금상은 '보령복합 증기터빈 시운전 입찰전략 수립으로 전력거래 수익증대'를 발표한 복합발전소 발전운영팀 김종렬 직원이 차지했다. 입상하지 못한 발표자 전원에게도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정덕한 보령화력 본부장은 "그 동안 바쁜 일상 업무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위해 애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제안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진대회 참여범위



를 확대시키고 발표방법도 다양화하는 방법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서부발전(주)**

**2003년 제1회 신경영혁신 전사 보고대회**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영철)은 지난 7월 15일 본사 709호실에서 신경영혁신 우수사례 보고대회를 열었다.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신경영혁신 100대 추진과제 중 소속 처와 사업소의 자체대회와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참가한 12개 과제추진반이 그 동안의 추진내용 발표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였다.

“조직의 구석구석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변화에 대응하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며” 경영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영철 사장은 최고의 발전회사에 걸맞는 서부인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개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회사경영에 동참, 기여하는 서부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이영철 사장은 과제발표를 마칠 때마다 추진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면서 격려와 치하를 하여 참가자들과 경영혁신의 공감대를 넓히는 한자리를 만들었다.

심사결과는 최우수상에 “연소용공



기 최적화로 보일러 효율향상” 과제를 추진한 대안화력본부(21C Power Industry Leader 추진반)가, 우수상은 평택화력(고압차단기 현장개발 추진반)과 서인천복합(최적화 추진반)이 차지하였다.

**두산중공업(주)**

**2억 4000만 유로 규모 이란 발전설비 수주**

세계 최대 44기 복합 화력발전소 보일러 공급 프로젝트

두산중공업(사장 김대중)이 2억 4000만 유로(3200백억원) 규모의 이란 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두산중공업은 이란 테헤란에서 김대중 사장과 발주처인 마프나 레판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마프나 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용 발전설비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이란 내 8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저효율 가스터빈 발전소를 고효율의 경제성을 갖춘 복합화력 발전소로 개조하는 공사로 복합화력보일러 공급 계약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두산중공업은 44기의 복합화력 주기기 보일러와 보조기기 설비를 창원 본사 내 전용공장과 이란 현지에서 자체 기술로 제작해 2009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두산중공업의 차별화된 기술과 제작 경험으로 세계유수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겨 수주하게 됐다”고 말하고, “이번 대규모 발전프로젝트 수주로 향후 이란에서 신규로 건설될 예정인 3000MW급의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외에 인근 아랍지역 플랜트 수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99년 3000만 달러 상당의 파르스(FARS) 복합화력 발전소 주기기를 수주하여 이란 발전설비 시장에 진출한 국내 최초의 기업으로, 이번 프로젝트 수주를 포함해 이란 지역에 총 50기의 복합화력 보일러를 공급하게 됨으로써 이란 내 최대 발전설비 공급업체로 부상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7일에도 요르단에서 9000만 달러 상당의 복합화력발전소 전환공사를 수주하는 등 이라크 전 이후 중동영업 전담팀과 영업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해 중동지역 플랜트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